

#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7. 19 (목)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 36작품(조각 21, 부조 1, 회화 11, 미디어 2, 설치 1)
- ◆ 결 과 : 승인 16작품, 부결 20작품

##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20~30분내 시간동안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1번 '츄사위 환회' 입니다.
- 사전검토 의견으로는 키치적이다, 조각적 아우라 부족, 매우 장식적이고 진부함, 가격논의 필요, 신선함 부족, 예술성 부족, 평이한 형상조각이고 작품상층부 구조 안전 우려, 등이 있습니다.
- 주제를 역동적이고 대중들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각적 아우라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도 됩니다.
- 유사작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점 많이 있어 상업적으로 보여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각자 개별 평가하시죠.
- 안건 2-1번 '이스트사이드스토리'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함, 진부한 표현, 두 점씩 배치되는 회화, 설치 위치 감상 공간 확보 등 확인, 예술성 부족, 평범함 등이 있습니다.
- 설치 투시도를 보면 작품설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하나요?
- 이것을 보니까 설명판을 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굳이 설명판이 있을 필요가 없고, 설명판 때문에 작품에 영향을 끼치므로 없는게 낫지 않나요?
- 공공작품을 볼 때 언제 만들어졌는지, 작가가 누구인지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왜 있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서 설명판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설명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은 설명을 읽어보고 맥락을 알 수 있으니까요.
- 설명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설명이 작품을 충분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 안 맞아요. 설명서를 보면 작품과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술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 회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작품이 동떨어져 보입니다.
- 건축주가 작품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맞게 위치선정, 벽면고려, 명판설치 등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이 부분이 전혀 고려가 없이 제출된 것 같아요. 벽면의 연출과 작품의 관계가 작품가치를 훨씬 떨어지게 보입니다.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안에다 4작품을 모두 배치했는데, 여러 작품을 내부에 놓는 것은 조금 부적합해 보입니다.
- 각자 채점하시죠.

- 안전2-2번 '빛이드는공간' 입니다.
- 미디어 작업은 불만 켜지는 건가요?
-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나 이런 건 좋은데, 추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관리실에서 켜다 켜다는 하지 않을 것이고 켜으면 켜고 켜으면 끈 상태로 둘 것 같은데요, 작품적으로 인터랙티브한 것도 아니고 미디어 작품이라는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인터랙티브한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 그런 건 아니고요. 굳이 작품이 인터랙티브할 필요는 없는데, 이 작품은 켜졌을 때 꺼졌을 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 작품은 그래도 온오프를 하면서 작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영상작품과 다르게 꺼졌을 때 작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켜었을 때, 켜었을 때 각각의 느낌이 있어서, 다른 여타의 작품들보다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장소적 특징과 조화롭고 작품형식이 흥미롭다, 새로운 매체가 시도, 적합, 두 점씩 배치되는 회화, 설치 위치 감상 공간 확보 등 확인, 조명과 단순성이 좋다, 신선한 시도의 미디어 작품,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 작품은 유지관리 플랜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켜지고 꺼져야 하는지가 필요합니다. 작품이 항상 인터랙티브할 필요는 없지만, 어쩌면 이것의 장점이 설치 유지관리에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오히려 꺼지고 켜지는 것 자체가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거라서,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켜져 있을 때 색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작품은 빛을 실내와 실외의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안을 단순화시킨 것이 아닌가, 자기 조형어법을 좀 더 창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자체에 몰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단순한 것이 이 작품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3-1번 '편린 이공일철' 입니다.
- 사전검토의견으로는 장벽처럼 답답함을 주는 구성, 작품가 과다, 독창성 부족,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 주제의식이 부족하고 부자연스럽다 등이 있습니다.
- 설명판은 영원히 남는데, 설명판을 보면 내용이 너무나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작품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미학적 접근으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 작품 제작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신선한 방법이긴 합니다.
- 첩보를 붙이는 건데요.
- 제작방법에는 접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산만해 보입니다.
- 이 장소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7,8페이지 보시면 평면이 360도에서 다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어디에 놓일지 고민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위치에 놓인다면 출입구 앞에 이 작품의 측면이 보입니다. 동그란 평면 디자인 상에 놓이기에는 작품의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소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과도한 형상이 공공조각으로서 지속적 미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 3-2번 작품 '윙스'입니다.

○○○ 면 분할 방법들이 발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고, 이전보다 못하는 작품들이 난무하고, 이제는 하나의 유행으로 너무 치달아 있어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공조각으로서 평이하고 친근한 면은 있지만, 작가적 해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장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용적 맥락성 부재, 진지한 주장의 부재, 건축공간과 부조화, 익숙하나 안정적인 작품, 무난하다, 면 분할기법이 많은 작가들에게 사용 등이 있습니다.

○○○ 고전적인 그리스적인 형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 면 분할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작가와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컴퓨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면 분할에 대한 대비효과가 확실해서 형상의 왜곡을 통해서 작품성을 획득하는 측면이 있는데, 보통 작가들이 쓰는 면분할은 컴퓨터의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이 아쉬운 면이 있고요. 패러디의 의미는 이 작품의 생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공공작품이다 보니 설명을 조금 쉽게 한 것 같아요.

○○○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4-1번 작품 '소리나무'입니다.

○○○ 이거 실제로 소리 나는 거죠? 소리가 나는 게 괜찮은가요?

○○○ 소음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와서 그런 면에서는 인정할만한 것

같고요, 소리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격이 이억오천입니다.

○○○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하나하나를 벤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요,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벤딩의 각도와 연결을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야말로 작가의 손길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이정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 즐기부분이 안정성 때문에 두꺼워지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작품성을 유지한 작품이라 좋을 것 같아요.

○○○ 위치는 괜찮은가요?

○○○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소리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옥이라서. 다만 엘이디 등 LED 색깔들이 빛 공해로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 계속 색이 바뀌고 반사가 된다고도 되어있는데요.

○○○ 야경 예시로 나오는 것이 예뻐 보이긴 합니다.

○○○ 야간조명을 모노톤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조건을 부여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 모노톤이 아니어도 조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작품은 스테인리스에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샌딩 처리가 되면 빛을 흡수하면서 반사하는 방법으로 하면 빛이 그렇게 튀어도 유치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작품에 공을 들인 것에 비해서 조명이 너무 단순하고 장식적인 것 같다.

○○○ 조명이 너무 변경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 각자 판단하시죠.

○○○ 안전 4-2번 작품 '더 엔드오브더웨스트' 입니다.

○○○ 매우 동양적인 느낌이 났어요. 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오히려 흑백이어서 나아 보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요.
- 흑백이라서 생각할 요소들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작품들은 컬러풀해서 사실 그 자체처럼 보이는데요.
- 사전검토의견으로는 형식적으로 우수하다, 적합하다, 작품성 있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전 5번 작품 '시간을 담아 흐르는 선'입니다.
- 가격은 오천육백만원입니다.
- 재료가 뭔가요?
- 스테인리스에 우레탄 도장하는 것이고 밑에는 타일이고요.
- 타일작업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작업인데요.
- 잘나가다가 조금 아쉽다고 봤습니다. 파타일하고 색깔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인물이 들어가는 게 아쉽습니다. 인물을 사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쉬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썼으면 신선한 감각을 잘 쓴 것일 텐데요.
- 인물 형상의 상투적인 면을 재고해서 지금현재의 조형성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 벽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 각자 판단하시죠.
  
- 안전 6번 '버드 소어'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장식성이 강함, 평이함, 작품의 주제와 건축물이 어울리지 않음, 안정성 확인이 필요, 신선함 부족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사전의견 참조하시 각자 판단하시죠.
- 넘어가시죠.

- 안전 7-1번 '장생도' 입니다.
- 크기가 커지고 색을 좀 빼고 한 것 같습니다.
- 부결 되었을 때 구상에 대한 상투성을 지적했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아마 회의록 상에서는 작품 유닛들이 작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평이함, 작품이 설치되는 벽과 작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기존보다는 나아졌으나 건축과 조화는 여전히 의문, 동시대적 미감과 형상의 신선함 부족, 큰 변화 없는 산만한 작품 등이 있습니다.
- 3D타인지는 몰라도 너무 산만한 것 같습니다.
- 지난번에도 간판얘기를 했었는데요, 간판과의 간섭이 적고, 이렇게 완성도가 나온다면 벽면에 이런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고판이 붙고 여기 무언가 붙었을 때 어지러울 것 같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브릿지에서 보이는 이런 방식들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 이 작품자체의 도형이 창의성이나 주제의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 이 도형 자체가 자기해석이 너무 부족합니다.
- 이런 걸 끌고 오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도형자체가 완결된 형식이기는 하나,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 좋은 조형들을 잘 빌려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죠.

- 안전 7-2번 '아스팔트에서 선인장을 만나다' 입니다.
- 사전검토의견으로는 맥락성이 없고 장식적이다, 평이하다, 상상력이 빈곤한 느낌, 건축공간과 부조화, 색감, 형태, 작품가 확인 필요, 가격과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사전의견을 참조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 넘어가시죠.

○○○ 안건 8-1번 '영혼의 정원' 입니다.

○○○ 당초 조각 작품을 삼천만원씩 일곱개 회화 작품으로 바뀌었네요.

○○○ 사전 검토의견으로는 무난함, 진부함, 형상의 평이함, 지속적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마곡이든 어디든 근린생활시설의 로비에 그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갖다놔도 작품으로 읽힐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3미터 깊이의 로비인데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갖다 놓는다고 한들 장소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차라리 아무데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조각이 막혀서 회화로 돌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장소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화작품을 층마다 같은 자리에 놓는 것 같습니다.

○○○ 이거 섬유잖아요, 괜찮은가요?

○○○ 때 탈 것 같은데요.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건 8-2번 작품 '알레고리 랜드스케이프'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함, 현대적 회화성이 특색인 평면작품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작품은 좋아 보입니다.

○○○ 상투적인 작업은 아니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상투적이지 않고 조형적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가격은 삼천이면 적당한가요?

○○○ 확실히 비싼 건 아닙니다.

- 8번 작품들이 명판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오른쪽하단으로 하든지 명판위치는 통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 8-3번 '명정지수'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반반이었습니다. 무난함, 진부함, 신선한 미의식 부족, 묘사가 뛰어난 즉 사실 회화작품 등이 있습니다.
- 즉사실의 작업은 그 즉 사실에 작가의식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 즉 사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라든지, 제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선한 공공미술을 경험하게 하자, 뻔한 거 하지 말자는 입장을 가졌을 때는 재고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 작품에 극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작품개념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작품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전 8-4번 '길 더 로드'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함, 진부함, 신선함 부족, 등이 있습니다.
- 회화는 취향이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라서, 미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각 층마다 설치하게 되면, 보통 그 전에 작품들은 거주자 외에 외부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서 공공미술로서 충족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층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주자만 출입하는 공간이 되면 거주자 외에 주변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공공장소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1층 로비라든가. 이런 곳은 공공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볼 때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 4페이지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 7층부터 업무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장소로 볼 수 있죠.

○○○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라서 일반인들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넘어가시죠.

○○○ 안건 8-5번 '사랑의 고백'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함, 진부함, 식상한 면이 있다, 평이함, 평범함 꽃그림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판단하시죠.

○○○ 넘어가시죠.

○○○ 안건 8-6번 '야생화'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 식상함, 평이함, 작품 밀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회화적 감각이 특별한 평면작품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판단하시죠.

○○○ 안건 8-7번 '조약돌'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 상투적, 기초표현, 신선함 부족, 묘사력이 뛰어난 회화작품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판단하시죠.

○○○ 안건 9번 '코스모그래픽' 입니다.

○○○ 미디어 작품인데요. 의견 주시죠.

○○○ 지난번에 부결된 작품인데요, 작품성은 높는데 미디어캔버스를 작품용으로 쓰지 의아하다, 처음에 몇 개월만 쓰다가 나중에 광고판이 될 여지가 깊다는 것 때문에 부결된 작품입니다.

작품성은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품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인서가 붙었더라고요.

- 같은 작가로만 구성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들로 구성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잘 합리적으로 한 것  
같고요.
- 요구한 대로 보완이 잘 된 작품 같습니다.
- 넘어가시죠.
  
- 안건 10번 '탑오브더탑' 입니다.
- 재심인데요.
-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 노멀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번 다른 곳에 나온 작품과 너무 똑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 형태적으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구요,  
센서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형상에 대한 변화를 꾀해서 이런 것에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작품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명을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한 것이 작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 형상은 유사하지만 만약에 빛이 잘 되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도출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명이나 인터랙티브한 접구는 유효하나 형상의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 여전히 조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요, 주변 광고판도  
반짝거리는데, 이것도 반짝거리면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빛들과 어울려서 산만할 것 같고요, 차라리 한 색으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11번 '서로마주보다' 입니다.
- 재심작품이구요, 그때 네 작품 중에서 떨어진 한 작품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함, 진부한 내용과 형식, 신선함 부족, 평이하고 장식성이 강함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12번 '무제'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적합함, 조형성 우수, 작품성 좋음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오리지널리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공간에 우선 잘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보여 집니다.
- 작품성도 좋고 여태까지 작품 중에서 공간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넘어가시죠.
  
- 안건 13-1번 '알레그레토'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하다, 변경작품이 나아졌다, 조형적으로 잘 정리된 깔끔한 작품,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렇게 구현될까요?
- 조금의 오차는 있겠죠.
- 이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평범한 형상의 작품이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 고민이 많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공은 들였는데, 아쉬움들이 있지만, 순수 조형성만으로 그런 맥락에서 푼다면 나름대로는 순수 조형으로는 잘 풀었어요.
- 조형 어법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덩어리감이라던가 잘 풀었어요.
- 선이나, 면이나, 비례라든지, 색깔의 비례, 균형 등을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13-2번 '판타지 인 매스' 입니다.

○○○ 이것도 재심입니다.

○○○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시카푸어의 작품의 안으로 쪽 한 없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자기식으로 풀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사전검토 의견으로는 형태가 평이하다, 형태적인 면에서 미적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난하다, 형태에 대한 접근이 아쉬운 작품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형상성이 아쉬워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음퓌 들어간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건 14-1번 '버터플라이 라이더' 입니다.

○○○ 부결사유에 대해서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좌대를 살짝 기울게 한 것도 예쁜 것 같습니다.

○○○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회양목을 드문드문 심는 것이 아니라 뻑뻑하게 심어서 그 안에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단목 형태 말고 균식으로 심어서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작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주변 회양목을 단목 형태가 아닌 균식으로 식재하도록 언급하시죠.

○○○ 넘어가시죠.

○○○ 안건 14-2번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이 있다' 입니다.

○○○ 이러한 접근이 신선한 것 같아요.

○○○ 건축, 조정, 다 끌어들이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 한 가지 글씨 쓴 것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라서 이 안에 주민들이 없는데, 아직 안 들어온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서 할 것인지, 주민참여라는게 조금 작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방향은 맞는데 실제 어떻게 진정성 있게 참여시킬 건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실제 어떤 글을 넣을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다면 입주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니, 보완사항으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넣어달라고 의견을 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할 때 외부에서 시선이 차단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 가 있을 때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전 14-3번 '점'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흥미로운 구성, 신선함, 작가정신이 잘 드러남, 특별한 감각의 형상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알루미늄을 통으로 캐스팅해서 그 위에다가 색칠한 겁니다.
- 이 작품을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치도 좋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전 14-4번 '삼남매의 꿈' 입니다.
- 작가의 조형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 그렇기는 하지만 다문화와 공공성의 부분을 너무 일차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 사람 작품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번 작품은 왜곡의 정도가 너무 평이해 보입니다.
- 사회적 이슈를 덧붙이느라고 왜곡을 심하게 하면 두 개 다

날아갈까봐, 휘발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 오히려 문화시설이나 사옥 같으면 괜찮은데,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감흥 할 것 같지 않습니다.

○○○ 제 생각에는 금천구 지역민들이 이것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 공동주택 안에 상점들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15번 '적의 바벨의 무한성'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함, 심의의 좋은 사례, 작품성 좋음,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치가 좀 건물에 묻힐 것 같습니다.

○○○ 안에 들어가니까 묻히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빠져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 작품설치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기둥사이에 있어서 어울려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 저는 위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 밖으로 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없는 것 같네요.

○○○ 순수재료가 돌이 쌓여있는 것만으로 원초적 감흥이 있어요. 작가도 그런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무난하다고 보는데요.

○○○ 근데 높이가 있어서 이것이 기둥 사이에 있어도 그렇게 위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눌러 보이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면 작품이 더 작아 보일 것 같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건 16번 '다크매터 일구공이' 입니다.

○○○ 저번보다는 나아보입니다.

- 위치도 바뀐 것 같습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하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장소와 어울림,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건 17번 '여기 검재의 산천'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적합함, 전체 형태와 미디어 구현 과정 확인, 무난함, 바닥을 이용한 것과 사계절, 시간대별 변화하는 미디어모습 좋음, 풍경을 현대조형 어법으로 잘 소화해낸 전체구조가 특이한 조각 작품, 등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18번 '자연을 담다'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개선됨, 나아짐, 조형적으로 잘 정리된 전통적인 돌조각 작품, 등이 있습니다.
- 우려되는 건 통돌로 해야 제 맛이 나는데, 분명히 이어서 붙일 것이란 말이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 원피스로 해야 됩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19번 '합성과 환희의 열정' 입니다.
- 변화가 없습니다.
- 이게 지금 3심입니다.
- 지난 부결사유 참고해주시고요, 사전의견으로는 지난 심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내용의 재해석 필요, 세부 디테일이 떨어진다, 이전 작품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직설적인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듦, 표현 방식이 진부함, 공공조각으로서의 예술적 상상력과 인물해석의 시대적 새로운 해석부족, 조금 나아졌음, 전 작품과 변화 없음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면은 뭐냐면, 이런 인물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을 넣었는데, 기법적으로 파이프를 사용하여 부조식으로 작품을 한 것은 나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광복했을 때 모습들을 건축주 쪽에서 이런 형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술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이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작가가 어떻게 미술적으로 표현할지에 달려있는 거고요.
- 지침에 나와 있어요. 군중을 표현해라, 독립운동한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을 표현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감이 반영되어야 한다, 역사 장면을 재현하라는 지침이 있네요.
- 그럼에도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가게 표현하는 것이 예술가의 몫 아닌가요? 표현이 안된다면 예술가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것이 군중이든, 독립위원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 구체적인 지침을 줬다면 작가가 가진 인체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잘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자기해석이 전혀 없는 형상들이라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을 줘서 들어가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확대해서 봤는데, 파이프를 사선으로 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파이프를 끊어서 빗살무늬처럼 붙인 것 같습니다.
- 좀 더 폭넓게 공모를 한다면, 창조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모를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 사실 공모를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기법적인 부분 안에서 조형성이나 조각이라는 조형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역사교과서의 삽화를 부조로 그려놓은 것 같고요, 조각의 형식들이 벽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삽화를 전사한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 예술이 상상력도 필요하고, 크기가 커져서도, 재료를 특이하게 해서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균중을 표현하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정형화되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는 형식보다도 그 인물의 진부함이에요. 인물의 시대성이 없고, 지금의 시대를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동시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하는데, 옛날의 그 시각,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이 광복회관은 중요한 장소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공방법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재료표현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요. 정확한 설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 저는 방법을 잘 구현해서 이 도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도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2차 심의 때보다는 좋아졌으나, 도상의 시대성이 미흡해 보입니다. 이분들도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건 구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묘사도 구상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쉽고요, 파이프로 하는 것은 여기 되어있는 것처럼 구현이 될지 의문이고요. 차라리 구상성을 담보로 하는데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변형되면서 전체 구성을 뒷면, 측면, 앞면 3면을 잘 활용하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미래세대와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봤을 때 글로벌한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전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차라리 공모를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정리하자면, 지난 심의 때보다 개선되었으나, 화면의 구도와 세부 구상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고요, 파이프로 제작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래세대에 설득력이 있고 글로벌한 표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공모 제도를 이용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시죠.
  
- 안건 20번 ‘물의 여행’ 입니다.
- 3심 입니다.
- 높이 2.6미터인데요.
-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무난하다, 평이하다, 개선되었다, 실제 크기와 제안서의 크기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인 필요, 과잉된 표현,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21번 작품으로 ‘어론엔투게더’ 입니다.
-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섬유를 씌우는 식으로 한 건데요.
- 작품은 좋아 보이지만, 작품이 놓여지는 게 작품이라기보다는 파티션을 나누는 가벽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작품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컨셉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컨셉 자체가

인테리어와 함께 합작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사전검토에는 작품자체만 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이건 공공적인 작품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공공미술인데 호텔 로비에 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 1층 로비가 아닌 8층 로비로 가는데, 여기도 미술작품이 놓이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이구요. 저는 미술작품이  
순수작품만 아니라 장식성 있는 작품도 괜찮다고 봅니다.  
의자도 공공미술에 포함되듯이.

○○○ 저는 작품이 일상 속에 들어가서 기능성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은 소파랑 해서 벽 역할을 하는데  
파손이나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료를 보면 뭔지 잘 모르겠네요.

○○○ 인테리어의 한 파트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 관리부분은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 관리는 알아서 잘 할 것 같습니다.

○○○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도시  
공간 전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인데 자꾸 인테리어화 되는 것에서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의 인테리어 비용을  
미술작품 비용으로 덮어씌우는 것처럼 보여서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공성에 대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로비라서 공공성을 문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게 인테리어 개념으로 사유화 되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 인테리어 기법처럼 들어가서 미술작품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도 좋고 안에 이용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인테리어 기법처럼 들어가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테리어 개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또, 이것은 소파가 이동하면 작품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인테리어 개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장소가 다르게 배치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배치는 작품을 위한 배치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위한 배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 호텔의 공간 특수성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술 인테리어를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들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안건 22번 '타임스페이스' 입니다.
- 위치변경 심의 안건 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적합함, 변경 이전보다 나음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참조하시어 각자 판단하시죠.

####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 오늘 36개 작품 중 2-2, 4-1, 4-2, 5, 8-2, 9, 12, 13-1, 14-1, 14-2, 14-3, 15, 16, 17, 18, 22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